

MC : FM90.7MH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프로그램 상쾌한아침 원기범입니다. 수요일 마지막날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제 4부인데요. 인천의정중계탑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인천 남구의 현안문제를 신현환 시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 인천의 도심이 구월동과 송도일대로 이전을 하면서 원도심 지역이 쇠락해 가고 있다 이런 지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신현환 시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세요?.

MC :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송의동하고 용현동 인거죠? 제3선거구가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의원님은 인천여고 나오셨던데 인천토박이신가요?

의원 : 제가 태어난 거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는데요? 1살부터 인천에 왔으니까 거의 토박이나 다름없습니다.

MC : 그러시군요. 약사 출신이시잖아요? 또 남구 의회의원도 지내시고 이제 시의회에 진출하셨는데 어떠세요? 약사생활이 더 어렵습니까? 의원생활이 더 어렵습니까?

의원 : 네 어려운 걸 따지면 확실히 의원생활이 어려운데요? 근데 보람이 있습니다.

MC : 남구가 지역구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인천에 남구가 사실 중심지였던 시절이 있었던 말이죠? 구월동, 송도 등으로 도심이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쇠락한 표현입니다만 낙후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 :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제 지역구인 송의동, 용현동이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송의동은 예전에 중구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품격 있고 잘사는 동네였거든요?

MC : 네 그럼요 조금 사시던 분들이 송의동에 다 사셨어요.

의원 :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인천에서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라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MC :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노심초사 하실 텐데 남구의 여러 지역 가운데에도 송의동 109번지가 가장 또 낙후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천 전도관 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 바로 아래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의원 : 네 전도관지역이 송의동 109번지인데요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찬란한 역사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우선 미국공사이며 의료선교사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의 별장터였습니다.

MC : 아 여기 알렌의 별장

의원 : 굉장히 관창은 동네였죠? 여기가 그런 후에 알렌이 미국 돌아간 후에 이원용아들 이용구가 별장으로 썼구요. 그 후에 사설상습생 개명학원으로 세워졌고 그다음에 경찰전문학교, 중앙대, 무성고등학교로 사용됐고, 그 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소실된 후에 평북출생 박태선 장로님이 이 땅을 사들여서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이 전도관은 이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오래 산 어른들이 전도관에 대한 향수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MC : 그렇군요.

의원 : 전도관이 1978년 이곳을 떠나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후에도 봉재공장, 신발공장이 들어섰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예루살렘교가 들어왔고 2005년 6월 서구 가좌동으로 이전까지 여기에서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그 이후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동네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각로 문화마을이라고 부르면서 예술가들이 직접 마을로 들어가서 문화적 재생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각로 문화마을에 이런 운동들 바람직합니까?

의원 : 네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의동 109번지를 이제 그 옛 이름을 찾아서 거기가 소의 뿔 이런 모양이 됐다 해서 우각로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MC : 쇠뿔이죠? 우각이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송의동 109번지하면 가슴이 뻑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맹목적으로 전도관을 따라 다녔고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MC : 아하 그러셨어요?

의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낙후로 인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이 주는 아주 신비한 기운, 희망의 기운을 느꼈ся거든요?

MC : 그 당시 어렸을 때.

의원 : 어려서 도 그렇고 제가 지역구 되면서도 그렇고

MC : 요즘도요

의원 : 네 그래서 이 기운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우각마을이 들어서면서 그 기운이 바로 이런 기운이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과가 많이 증가됐고 그로 인해서 노숙자나 주취자, 범죄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동네였습니다. 이런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가와 주민이 힘을 합쳐서 문화와 예술의 마을로 바뀌어나가는 우각로 문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주민과 마찰하는 등 시련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구청장 아닙니까 문화구청장 박우석 구청장님 추진력과 남구 21 문화분과 의원들과 인천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송의1.3동 동장님, 공무원, 통장님들 그리고 공가와 전도관 소유주, 주민들이 모두 이렇게 협력해서 나눔과 화합의 멋진 문화예술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좀 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우석 남구청장도 자주 발걸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마을이 우각로 문화마을이 어떻게 변모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 : 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석구청장님도 이 송의동 109번지 주민들에 대해서 늘 마음아파하고 빛을 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출직 들은요 이 마을이 어둡고 안 되고 이러면 마음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MC : 그렇죠.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클 거구요.

의원 : 그래서 저하고 담화 나눌 때도 송의동 109번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여기 갖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거를 늘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시킨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각로마을이 문화중심에 창조도시를 꿈꾸시는 청장님의 큰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각로마을은 문화와는 창의력교실, 영어교실 그리고 마을 어린이와 함께하는 전도관 도심캠프, 전도관 마을극장을 개소했고요, 또 마을 사랑방겸 행복도서관을 조성했고, 주민과 함께 벽화사업을 전개했으며, 우각로 마을잔치로 장수사진의 촬영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재원마련을 위해서 우각로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문화체험벨트조성, 도서관운영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사회적 기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각로 문화마을 만들기가 지속가능한 문화마을 만들기에 대표적 사례가 돼서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닌 그리고 재개발 자연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삶의 질 향상 문제에 대한 대안과 희망으로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노력과 인천시 남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MC : 그러게요 이 재개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또 갈등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 또 자립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함께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 예산만 받아서 하는 거는 필요 없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MC : 고기를 줄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게 낫죠? 지역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각로문화마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신현환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우각로 문화마을 바로 아래 경인국도 주변에 예전에 목공소들이 많았잖아요? 목공예거리 조성계획도 있고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 우리 송의동3거리에 밀집돼 있는 목공소를 목공예마을로 특화해서 전통보전 및 새로운 문화명소로 제공하고 지역 고유문화 자원 활용해서 집객효과로 구도심 활성화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MC : 지금 목공예 관련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그 지역에

의원 : 네 한 20여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민간 주도적 장기적 계획이었는데요 우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두 개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빠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C : 네 그렇군요. 이것도 특화하는 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실 배다리 마을은 중구죠? 경동에 싸리재거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원도심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남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가 좀 합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 동구, 중구 역시 굉장히 역사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인철도 루트를 중심으로 중구, 동구, 남구 이렇게 세 개의 구와 그리고 인천시의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MC : 인천문화재단이요?

의원 : 네 그래서 3+1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구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문화지구 활성화, 동구는 배다리 역세문화지구 활성화, 남구는 아까 말했듯이 목공예 마을과 우각로마을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상호 협력해서 나아가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MC : 네 지금 원도심에 사시는 분은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예전의 번영됐던 모습도 다시 한 번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 감사합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섬세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신현환의원과 말씀나눴습니다.